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	--	------	--	--	--	---	--	--	--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소(親疎)의 구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인위(人爲)에서 벗어나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참된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 인의(仁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시비(是非)를 분별하려는 태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곳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생산자는 재화를 생산하고, 수호자는 나라를 보호하고, 통치자는 정책을 결정한다. 자기 계층의 일에만 몰두할 때 정의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된다.  
 을: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면 아침에는 사냥, 오후에는 고기잡이, 저녁에는 비판에 몰두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개인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다.

- ① 갑은 물질적 풍요를 국가의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개인의 공적에 따라 재화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국가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 계급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의 일부 계층만이 사유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본다.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옛날에 훌륭한 도(道)를 행하는 사람은 백성이 밝음을 가지게 함이 아니라 장차 어리석음을 가지고 가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림은 나라의 도적이고,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음은 나라의 복이다.

- ① 예악(禮樂)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는가?
- ② 하늘이 명령한 도덕적 규범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 ③ 자연의 이치에 따라 무지와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④ 형벌(刑罰)을 강화하여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춰야 하는가?

4.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비구들이여,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질병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보 기>

- ㄱ. 연기(緣起)를 깨달아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 ㄴ.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여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 ㄷ. 극단적 고행을 통해 참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
- ㄹ. 무아(無我)를 인식하여 고정된 자아를 확립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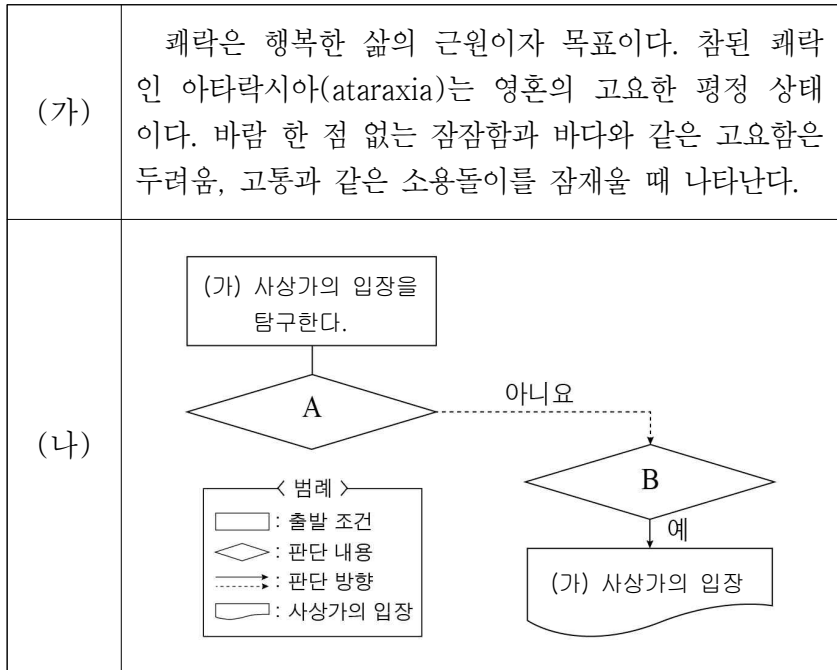
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덕과 악덕은 단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덕이나 악덕이 유발하는 어떤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임이 분명하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	✓			
사회적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다.		✓		✓	✓	
도덕의 목적은 모든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	✓		✓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6.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공적인 삶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ㄴ. A: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가?  
 ㄷ. B: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의 충족을 인정하는가?  
 ㄹ. B: 진정한 행복은 모든 정념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저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천주(天主)의 상(象)과 사학(邪學)의 서책들이 함께 섞여 교역되고, 사학이 온 나라에 두루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내버려두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변하여 금수(禽獸)가 될 것입니다.  
 을: 시천주의 '시(侍)'는 한울님을 깨달았다는 의미이고, 천주의 '주(主)'는 내 마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달으면 상제가 곧 내 마음이고, 천지도 내 마음이니 삼라만상이 다 내 마음의 한 물건입니다.

- ① 갑은 의리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  
 ② 갑은 동양의 도를 지키고 서양 기술을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③ 을은 현세의 고난 극복이 아니라 내세의 행복을 추구한다.  
 ④ 을은 우주 만물은 일원(一圓)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⑤ 갑, 을은 외세를 배척하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옹호한다.

[8~9] 갑, 을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그것을 따르는 정(情)이니 순선(純善)하여 악이 없다. 칠정(七情)은 기가 발(發)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정이다.  
 을: 사단은 맑고 밝은 기를 타고 천리를 따라 곧장 나온 정이니 정의 선한 측면이다. 정의 불선(不善)한 측면도 이에 뿌리를 두었지만 더럽고 흐린 기에 가려져 사단이 되지 못한다.

8.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칠정은 순선한 사단을 겸하고 있는가?  
 ㄴ. 이와 기는 모두 운동성을 지니고 있는가?  
 ㄷ. 사단과 칠정은 모두 마음에서 드러난 감정인가?  
 ㄹ.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의 입장에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내 마음[心]의 양지(良知)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효도의 이(理)가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효도의 이도 없다.

- ① 앎[知]과 행함[行]은 본래부터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② 격물(格物)이란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③ 이(理)와 심(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④ 사욕을 제거하고 본성을 함양하면 성인이 됨을 모르고 있다.  
 ⑤ 경(敬)의 자세로 각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0.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만물은 신의 섭리로 충만하다. 어떠한 만물의 변화조차도 자연의 이성(理性)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일은 자연의 인과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당신 또한 우주의 일부분으로 이를 따라야만 한다.  
 을: 만족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에 찬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바보가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면 그것은 그가 낮은 쾌락만 알고 질 높은 고상한 쾌락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 ① 갑: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  
 ② 갑: 유일신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을: 자연적 경향성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행위해야 한다.  
 ④ 을: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⑤ 갑, 을: 사회적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11.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모든 사물은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존재하며,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당신에게 그렇게 존재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을: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악한 행위는 무지의 결과이다. 선함에 대해 무지하면 그것을 행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부와 명성을 누리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악 판단의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을은 ㉢ 고결함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을 중시했으며, ㉣ 도덕적인 삶을 위해 참된 앎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철학의 탐구 주제를 자연의 근원에서 인간의 문제로 전환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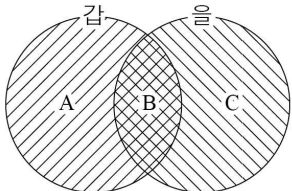
12.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예(禮)라는 것은 성인의 인위[偽]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원래 인간의 본성[性]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질그릇은 옹기장이의 인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진흙을 그대로 두면 질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을: 보통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군자는 그것을 보존한다. 순임금은 모든 사물의 이치에 밝았기에 인간관계의 질서를 살피고,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 ① 갑은 타고난 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갑은 예를 통해 욕망을 다스려야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며 선한 것은 인위 때문이라고 본다.  
 ④ 을은 선함과 악함 모두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고 본다.  
 ⑤ 갑, 을은 수양을 통해 선천적인 도덕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13.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의 행위는 항상 선(善)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최고선 곧 행복이다. 행복한 삶에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필수적이다.</p> <p>을: 인간의 행위는 항상 최고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만으로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신(神)의 계획을 완성할 때 완전한 행복인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to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font-size: small;">                 &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div>

<보 기>

ㄱ. A: 신에 대한 사랑은 행복을 위한 최고의 덕이다.  
 ㄴ. B: 이성에 기초한 도덕적 삶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  
 ㄷ. B: 최고선은 초월적인 것이며 이상 세계에만 존재한다.  
 ㄹ. C: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치[理]는 형이상의 존재로 흔적과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측은(惻隱)의 정(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性)에 측은의 이치인 인(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수오(羞惡)의 정(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에 수오의 이치인 의(義)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물마다 그 이치가 있으니 이치가 없다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 ① 사람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라고 본다.  
 ② 마음 밖에는 어떤 사물도 이치도 없다고 본다.  
 ③ 수오의 정을 확충하면 의(義)가 생성된다고 본다.  
 ④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본다.  
 ⑤ 이와 기는 현실의 사물에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본다.

15.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래가 설한 바 일체의 교법이 일각(一覺)의 맛[味]에 들지 않는 것이 없다. 본래 일각이었던 일체 증생은 다만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꿈 따라 유전하다가 모두 여래의 일미(一味)의 말씀에 따라 마침내 일심(一心)의 원천으로 돌아온다.

<보 기>

ㄱ.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수행을 통해 해탈해야 한다.  
 ㄴ. 일심으로 모든 이원론적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ㄷ. 모든 종파의 설이 옳고 모든 법문이 이치에 맞는다.  
 ㄹ.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돈오점수의 수행법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북해의 신선 약(若)이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장소에 구애되기 때문이고, 여름 매미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시간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편벽(偏僻)된 선비에게 도(道)를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주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도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한다.  
 ㄴ.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강조한다.  
 ㄷ. 좌망(坐忘)을 통해 시비선악을 구별할 것을 강조한다.  
 ㄹ. 인의(仁義)를 확충하기 위해 수신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행복은 거대한 기계인 우주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하는 데에 있다. 이 행복은 신(神)에 대한 이성적 관조를 통해 참된 인식을 얻음으로써 이룰 수 있다.  
 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선이라고 불리던 것이 악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자신의 욕구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 ① 갑은 인간의 유한성이 인격신의 은총을 통해 극복된다고 본다.  
 ② 갑은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명석 판명한 진리에 도달한다고 본다.  
 ③ 을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한다고 본다.  
 ④ 을은 타고난 이타심을 도덕적인 행위의 유일한 동기라고 본다.  
 ⑤ 갑, 을은 이성이 아닌 경험을 통해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18.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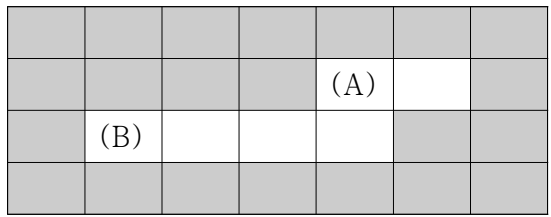


— <보 기> —  
 ㄱ.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의 이치가 곧 사덕이다.  
 ㄴ. 인간은 육체적 욕구와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다.  
 ㄷ. 선인과 악인의 구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다.  
 ㄹ. 선을 좋아하는 성향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을: 오직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밖에서조차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선의지뿐이다. 천부적 재능조차도 의지가 선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나)  
 [가로 열쇠]  
 (A): 뜻밖에 생긴 좋은 운수. 불운의 반대말  
 (B): '화(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갑: 공리의 원리에 따라 행위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② 갑: 결과와 무관하게 이성을 따를 때 획득되는 것이다.  
 ③ 을: 정언 명령에 따라 행위할 때 항상 얻어지는 것이다.  
 ④ 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⑤ 갑, 을: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20.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히 밝힌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가를 그 영원불멸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 <보 기> —  
 ㄱ.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ㄴ. 근면한 직업 생활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구현해야 한다.  
 ㄷ. 금욕적 삶의 자세를 바탕으로 직업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ㄹ. 개인의 이윤 추구를 직업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